



품질제일주의 · 차별화전략으로 정도경영 일관

디지털시스템으로의 과감한 재투자 통한 제2의 성장기 맞이

IMF는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주었고, 적지않은 기업들이 도산의 위기를 맞거나 도산했다.

그러나 외면의 어두운 막을 걷어내고 보면 여러 여건들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경영과 기술적 성장을 거듭해 온 기업에게는 IMF가 잠시의 어려움을 넘어 호기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주)삼지에드텍의 경우도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8년 말, 경매를 통해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의 인천공장을 매입한 후 1년여의 구조개선을 통해 99년 11월 인천 본사를 개업한 (주)삼지에드텍은 이와 함께 설비확보에도 과감한 투자를 해 제판업계에서 견실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제 국가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고 각 분야별 산업들이 활기를 띄고 있는 지금, (주)삼지에드텍은 이러한 추세에 들뜨지 않고 지금껏



▶ (주)삼지에드텍
인천본사 전경



▲ 조기수 대표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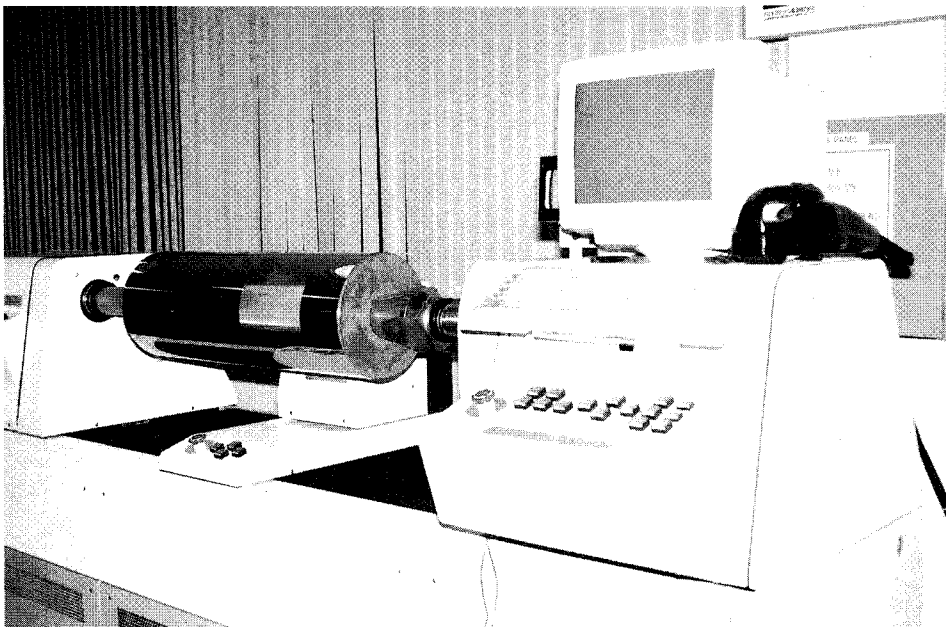
추진해 온 투자와 기술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좀 더 먼 앞길을 내다보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하는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재판업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에 대한 마인드와 설비의 투자가 요구되었던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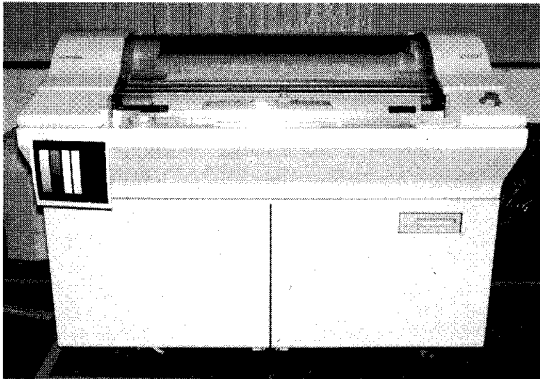
사실입니다”라고 설명하는 조기수 대표이사는 IMF의 끝에 공장을 마련하고 바로 일본의 다니폰스크린사와 협의해 디지털 시스템으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시도한다.

국내에 독일의 헬리오시스템이 많이 도입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그라비아 인쇄분야의 경우 일본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 일본기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는 조 사장은 국내 재판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일본 VALCUS 조각기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인쇄재현성 면에서는 최고임을 자부하고 있다.

“기존 헬리오시스템은 필름을 데이터화하기 위한 업그레이드 과정이 필요한 반면, VALCUS 제품의 경우 Filmless Data 전용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절약이 가능하고 품질적인 우수성도 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조 사장은 GI-3090 필름 스캐



◀ (주)삼지애드텍의 VALCUS 조각기



▲ GF-3090 스캐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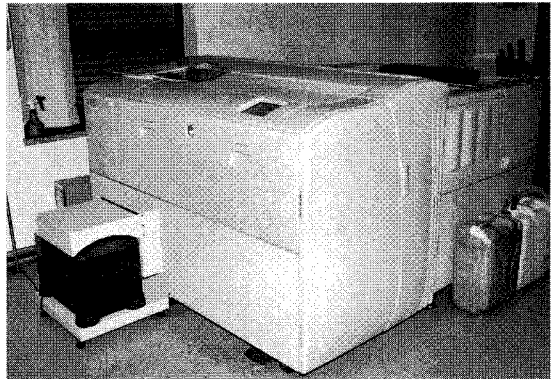
너를 동시에 도입해 필름으로 작업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배려도 잊지 않았다.

(주)삼지에드텍의 이러한 투자를 통해 기존에 필름으로 작업을 한 업체의 경우 데이터화하기 위해 다시한번 재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성능의 GF-3090 스캐너로 정밀 스캔을 한 후 VALCUS 조각기에 데이터로 입력되기 때문에 기존 아이템을 유지하는 한편, 좀 더 정밀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시스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 작업여건을 연결할 수 있는 한편, 새로운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 VALCUS 조각기는 국내에서 사용하던 기존 조각기가 초당 4천회를 조각하는데 반해 초당 5천회를 조각할 수 있어 시간은 물론 20%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성능이 입증된만큼 지난 달 말 2호기의 도입해 폭넓은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했다.

한편, 조 사장은 (주)삼지에드텍의 차별화 전략 중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실을 꼽았다.

국내 제판업체들 중 자체적인 디자인실을 갖춘



▲ 서울사무소의 최첨단 정밀출력기

업체가 드물고, 있더라도 시작단계인데 반해 (주)삼지에드텍은 그라비아 제판업계 최초로 디자인실을 설립, 적극적으로 투자해 전체 종업원 수 50명 중 12%에 달하는 6명의 디자인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디자이너로 활동하던 중 인쇄과정에서 디자인 의도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확인하게 됐고, 그러다보니 인쇄과정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라는 조 사장은 그러한 인연으로 오늘의 (주)삼지에드텍을 설립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저희 (주)삼지에드텍은 큰 규모의 유저들로 꾸려진 기존 시장에 경쟁을 통해 자리를 확보하기 보다는 틈새시장을 공략해 물량은 적지만 다양하고 많은 업체들을 유저로 확보하고 있습니다”라며 디자인실을 통한 효과를 설명하는 조 사장은 작은 규모의 업체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디자인실의 확보는 당연한 요구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주)삼지에드텍에 작업을 의뢰하는 적지않은 기업들이 디자인실의 확보는 차치하고, 디자인

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삼지애드텍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실에서 전문성을 갖춘 디자인을 해주므로써 유저들의 매출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을 줌은 물론 디자인경쟁력에 대한 기업의 인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차별화전략을 세우고 있다.

(주)삼지애드텍의 또 한가지 특징은 자체 교정실에서 시험인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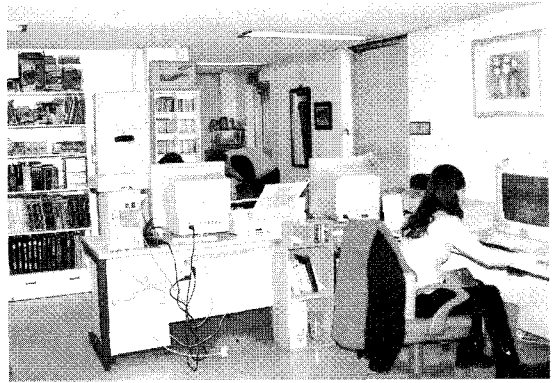
일본에서 수입한 교정기를 확보하고 있는 교정실은 제판업계의 샘플링 평균시간이 2시간에 반해 샘플링 전체 공정을 20여분 안에 완료해 정확한 납기를 가능하게 하며, 일차 교정이 가능하므로 유저들의 작업과정에 큰 도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객만족을 위한 (주)삼지애드텍의 서비스정신이 돋보이는 또 하나의 사례이다.

한편 1억 5천만원의 큰 예산을 투입해 인천공장 내에 자체 폐수정화 및 폐자재처리와 배기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하는 조 사장은 앞으로 제판업계가 환경친화적인 사회적 흐름을 역행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금까지는 에칭작업이 주를 이루었지만 조각타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라는 조 사장은 현재 제판업계가 좁은 시장에서 제살깎아먹기식의 과당경쟁을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비추면서 현재 에칭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각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해야 하며, 또한 유저들이 조각타입을 이해하고 선호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주)삼지애드텍의 디자인실

경쟁에 주력할 때임을 설명하는 조 사장은 이처럼 정도경영을 통한 시장정상화에 업계의 힘이 모아져야 한다는 바람을 내보이기도 했다.

어려운 시기에 과감한 투자를 통해 주위의 우려를 사기도 했으나 시스템 도입 전보다 두배에 가까운 매출기대치를 낙관한다는 조 사장은 앞으로도 고품질을 위한 투자에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을 것임을 자신했다.

앞으로 국내 통신망 기술이 안정되면 거래처와 인터넷망을 구축해 데이터 전송 시스템을 갖추어 빠르고 정확한 업무력을 갖추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한편, QC검사실을 갖추어 품질제일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는 (주)삼지애드텍은 일반적인 업계의 흐름에 편승하는 안일한 경영에서 벗어나 앞선 사고와 개척정신으로 제판업계는 물론 유저들의 밝은 미래를 현실화하는 큰 역할을 담당해내고 있다.

정도경영을 토대로 한 (주)삼지애드텍의 진보의 걸음 앞에 탄탄한 지름길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

윤지은 기자